

‘불수능’ 영어·국어에 사탐런까지…복잡해진 정시 셈법

만점자 5명에 그쳐…영어 1등급 비율 절대평가 후 ‘최저’ 수능 최저 미충족 늘듯…입시업계 “정시 ‘키’는 국어영역” “대학별 영어 반영비율·탐구 변환표준점수 면밀히 파악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점 결과 영어·국어가 전년보다 매우 어려웠다 고 평가받는 가운데, ‘사탐런’의 영향으로 사회·과학 탐구 과목 간의 상위등급 인원 격차까지 커 수험생의 입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출연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시 지원자 중 수능 최저등급 충족에 실패한 수험생은 대학별 과목 반영 비율을 따져보고 탐구 영역의 변환표준점수도 파악한 뒤 정시에 지원하라고 조언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체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전체의 3.11%(1만5154명)에 그쳤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다.

영어 1등급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에 그친 학생들은 대체로 영어·국어 고득점 여부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평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졌는데 만점자 비율이 줄었다.

종로학원은 “수학 만점을 받고도 국어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면서 “상위권의 핵심 변별 과목은 국어”라고 강조했다.

진학사 역시 “올해 의대 등을 노리는 최상위권 수험생의 당락은 수학에서의 실수를 국어에서 얼마나 커버하느냐가 아니라

‘국어 고득점 여부’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입시업계에선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 해도 수능 영역별 점수 반영 비율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추려 정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영어 영역에서 쓴맛을 본 수험생이라면 영어 반영 비율이 큰 대학 지원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지난달 13일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34시험장인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신중해야 한다. 현재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영어 반영 비중은 연세대·고려대, 서울대 순으로 높다.

비상교육은 “대학의 환산 점수 유불리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자기 성적을 비

교해 보고, 비슷한 점수대 학생의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탐구과목 중 사탐의 상위등급 인원은 급증하고 과탐은 급감한 점도 정시 도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다.

자연계 학생이 과탐 대신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번지면서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사탐에서 2

등급 이내에 든 수험생은 전년 대비 30.0%(1만8천375명) 증가했으나 과탐의 경우 25.3%(1만2612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사탐 고득점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정시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졌다”고 짚었다.

진학사는 “사탐런을 했으나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은 경우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자연계열로 지원하기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리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사탐과 과탐 모두 세부 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는 크지 않아 선택 과목별 유불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는 또 사탐·과탐 점수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어와 달리 성적표에 표기된 점수를 대학이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대와 흥의대, 국민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수험생의 탐구영역 점수를 볼 때 각각 다른 변환표준점수 체계를 활용한다.

대성학원은 “많은 대학이 탐구 영역에서 백분위 기반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한다”며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표준점수를 적용하므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수험생은 목표하는 대학의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평가원 “내년 수능 영어 1등급, 상위 6~10% 목표”

“사이언스 번점 답안, 3~4회 확인해 불이익 없도록 해”
“국어 문제 오류 없었지만…교육과정 수준으로 낼 것”

오승걸 평가원장 일문일답



한국교육평가원(평가원)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1등급 인원은 상위 6~10% 내외가 되도록 출제 방향을 잡고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체점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에서도 적정 난이도를 목표로 하고 출제했으나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장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 등에 나온 기준 문항과 유사한 (수능)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추후 다른 여러 요소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체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난 3.11%로 집계됐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어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 대비 8점 오르는 등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오 원장과의 일문일답.

- 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수능에서 1등급이 4%대로 나오지 않은 것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닌가?

△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끔 난이도 목표를 설정하고 출제하고 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적정 난이도를 목표로 출제했지만,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영어 1등급은 상위 6~10% 내외가 나오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도 이런 목표치를 두고서 출제 방향을 잡겠다.

- 영어 문항 중 오답률을 높였던 문항은

1등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탐과 과탐 간 편차가 최소화됐고, 세부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도 전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수학을 제외하면 전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다.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 출제할 건가.

△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수능평가자 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의 의견을 풀어내어 수험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적절한지 살피겠다.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 출제가 적절하다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끔 방향을 잡겠다.

- 일부 지역에서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사인펜이 벗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다.

△ 이의 제기가 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실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류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문항과 문항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도록 하겠다.

- 문제 오류로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나.

△ 아직 없다.

-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탐 1등급 인원이 늘었다.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 적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선택과목 수가 많아 보니 과목 간 응시생 편차가 크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도록 출제한다 해도 당해년도 수험생들의 특성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사탐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동점자들이 발생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묻지마 사탐런’ 현상 결국 ‘독’ 되나 상위권 경쟁 치열…중위권 ‘이중고’

사탐 2등급, 작년比 1만8000명 ↑…과탐은 1만2000명 ↓
중상위 이과생 ‘사탐런 역효과’…“인문계열 경쟁 심화”

문과·이과 학생 수는 탐구영역 7308명으로 집계됐다.

여대급 사탐런 현상에 탐구영역 간 회비가 엇갈린 셈이다.

특히 사탐 2등급 안에 든 수험생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도 정시모집 지원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탐과 과탐 모두 6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사탐 96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6만1236명)보다 무려 1만8375명(30.0%) 증가한 규모다.

선택과목별로 보면 작년 대비 사회문화학과 9496명(48.0%), 생활과윤리는 5180명(29.0%), 윤리와시상은 1357명(29.8%)이 각각 늘었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8개 과목의 2등급 이내 인원은 작년(4만9920명) 대비 1만2612명(25.3%) 감소한 3만

명으로 집계된다. 올해 사탐은 과탐에 비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다.

진학사는 “사탐런을 한 이과생의 경우 사탐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

렇다고 자연계열로 지원하기에는 가산

점을 받지 못해 불리하다”며 “이런 수험생들은 이중고를 겪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 사탐만 선택한 인원은 60.04%(28만 4535명)를 기록했다.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응시생 8만 1023명(17.10%) 까지 합하면 사탐 1과목 이상 응시자는 77.14%에 달한다.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2.86%(10만8353명)에 그쳤다.

진학사는 “극심한 사탐런에 인문계열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실제로 진학사 모의지원 데이터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인문계열에 솔리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학원에서 열린 수능 기재점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대입 지원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